

# “동함평산단·해보농공단지 분양 박차...기업도시 기반 다질 것”

## 민선 6기 하반기 새 설계 안병호 함평군수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실현하는 데에 힘을 쏟겠습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20일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6기 2년간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군민 모두의 이해와 힘이 모여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물”이라며 “남은 2년도 군민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군수는 민선 6기 후반 역점과제로는 ▲역동적인 기업도시 함평 조성 ▲농축산어업 생산기반 지속 확충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 조성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교육중심도시 도약 ▲소외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문화관광 창조 ▲투명하고 안전한 군민중심 행정 등을 제시했다.

안 군수는 민선 6기 전반기 동안 담아놓은 산업 도시의 기틀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차 산업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거점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나비축제·국향대전 내실화 주력

안 군수는 실제 동함평산단 준공 1년여 만에 분양률을 87.5%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 최초로 준공 이전에 분양을 모두 마친 해보농공단지는 30개 기업이 입주해 17개 기업이 정상 가동하면서 지역경제를 깨우는 동력이 되고 있다.

안 군수는 “조만간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국가산단인 빛그린산단까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 군수는 함평의 주요 산업인 친환경 농·축·수산업에 강화하고 6차 산업화해 군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군수는 “5대 특화작목,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식품 산업화, 친환경식품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축사시설과 우시장을 현대화하고, 한돈 육가공시설과 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직거래장터,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구조를 다변화해 6차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주요 역점사업은

- 역동적인 기업도시 함평 조성
- 농축산어업 생산기반 지속 확충
-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교육중심도시 도약
- 소외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
-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초생활기반 정비
-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문화관광 창조

안 군수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안 군수는 “그동안 서부특성화중, 통합함평중, 거점교 설립, 골프교 이전 등 명품 교육환경을 구축에 주력해 왔다”면서 “후반기에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골프대학, 국제 규격 골프장, 영재교육진흥원, 다문화교육원, 국제전자도서관 유치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군수는 이어 체험교육도시와 골프교육도시로 특화시켜 명망 있는 국제 골프대회를 유치하고 골프 유학생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장기 전략도 추가했다.

안 군수는 전국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축제로 이름을 높인 함평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의 내실화도 약속했다.

안 군수는 “올해 끝난 제1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9억9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며 “민선 6기 하반기에는 축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뒤 소득형 문화관광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안 군수는 이와 함께 청렴 함평군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안 군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도내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고, 전남도 201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청렴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 신안군 지방자치행정·환경경영 대상 잇단 수상

고길호 신안군수가 2016년 지방자치행정 정부부처 대상과 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고길호 군수는 ‘섬의 시대’를 선도해 가기 위해 7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화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고 군수는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 을 민선 6기 군정목표로 총체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과 빈곤이라는 섬의 애환을 반드시 우리시대에 극복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세우고,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등 군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군수는 특히 신안군 성장동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건설중인 새천년대로, 입자대교, 안좌-자라, 하의-신의 추포-암태 등 연륙, 연도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세계



고길호(오른쪽) 신안군수가 지난 2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신안군 제공>

적인 해양관광 명품 섬 신안 육성’ 추진과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점도 인정받았다.

고 군수는 또 지난 20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안 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로 해양환경보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경영

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고 군수는 “지방자치 행정부문과 환경경영부문의 연이어 대상 수상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소통하고 원칙에 입각한 바른 업무처리와 정직한 군정의 바탕 위에 700여명의 공직자를 비롯한 4만3000여 군민이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면서 “앞으로 더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성진기자 sslee@

## 전국 80개팀 2000명 영광스포티움서 중·고 유도연맹전

영광군은 “2016 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단위 유도대회 가운데 규모 있는 대회로 꼽히는 이번 유도연맹전에는 80개팀에서 선수와 임원 등 2000명이 참가했으며, 남중 10체급과 여중 8체급, 남·여고 각 9체급이 참가하고 있다.

경기방법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며, 단체전은 리그전 경기 방식을 통해 상위 2개 팀을 선정한 뒤 8강전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 유·청소년 대회 파견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각 계층별 우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계를 빛내는 선수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영광 불갑사 진노랑상사화 만개

### 영광군 내일 산사음악회

상사화 축제로 유명한 영광 불갑사에 진노랑상사화가 만개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

스님들이 거처하는 불갑사 무각선원 앞 경사지에 피어난 진노랑상사화는 백합목 수선화와 상사화속에 속하는 꽃으로 상사화속 식물 중에서는 가장 빨리 꽃을 피우며, 번식이 어렵고 자생지가 한정돼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불갑사 관공지에는 진노랑상사화 외에도 상사화와 붉노랑상사화, 제주상사화, 위도상사화, 백양꽃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9월 중순께 열리는 상사화 축제 기간 동안 절정을 이루는 석산(꽃무릇)까지 더해 상사화의 고장으로 불린다.

상사화는 영광군의 군화이기도 하며, 영광군은 23일 오후 3시 불갑사 무각선원 앞에서 통기타, 플루트, 대금, 트럼펫 연주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평택 토지 매매

### ★ 삼성전자 120평 ★ LG 3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 개발 부지 ★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5분 (송북시장) 토지 184평
-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 개발 부지 ★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2분 토지 359평
-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 개발시 순수익 37억 발생

▶ 매가 30억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고덕 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 6층 - 23평
- ▶ 투룸 형, 코너자리
- ▶ 리모원비, 풀옵션, 코너자리
- 보 500만 월 45만

★ 매가 - 8천500만